



# 손으로 보는 세상



## 시선집중

한자 점자 연구회의 발족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석규(한자 점자 연구회 총무)

## 테마기획

취임사

## 인터뷰

사랑스러운 유성이를 키우는 워킹맘 조현영 씨

## 포커스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유채꽃

04 | 시선집중

▶ 한자 점자 연구회의 발족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석규(한자 점자 연구회 총무)

06 | 테마기획

▶ 취임사

08 | 인터뷰

▶ 사랑스러운 유성이를 키우는 워킹맘 조현영 씨

10 | 포커스

▶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한파 속의 쪽 별  
이성희(시각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13 | 월드 리포트

▶ 브라이언 맥키버, 패럴림픽 5연패 성공!  
▶ 일본 개그계를 평정한 시각장애인 하마다 유타로

14 | 뉴스앨범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타악기를 연주로 스트레스 타파!  
▶ 시각장애인 가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 자전거를 타며 싱그러운 바람을 느껴봅니다!  
▶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가정문화체험 실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4월이 되면 제주도 일대는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이는데요.

# 유채꽃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ㅑ	ㅓ	ㅕ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육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가운뎃점 (.)	말줄임표(...)		말줄임표(...)		소괄호( )		대괄호[ ]						
영 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프스트로피 ,

○ ㄴ, ㄷ,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ㅋ, ㅌ, ㅍ, ㅎ 다음에 약자 영 ㄹ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한자 점자 연구회의 발족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석규(한자 점자 연구회 총무)

한자 점자 연구회(회장: 강태봉)는 2017년 8월에 출범하였다. 본 연구를 발족하게 된 것은 그간 시각 장애인들이 한자를 공부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끔찍하기 때문이다.

아래에 그 심각하고 끔찍한 문제 몇 가지를 들어 보기로 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알고 나면 지금까지 한자 공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한자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2016년 11월에 어느 월간지의 점자 관련 기사를 읽다가 “1979년 … 대학 상비고사 문제 점역 대비 …”라는 구절을 접하고, 한자로 된 ‘예비고사(豫備考査)’를 한글로 ‘상비고사’로 잘못 전사한 것을 오사인 줄 모르고 인용한 것임을 직감하고, 그 근원을 찾아보려고 도서관에서 점자 관련 문헌을 검색하다가 1983년에 나온 단국 대학교 김승국 교수의 국한문 혼용체의 “한국 점자 통일안”이 있어서 빌려서 서론을 읽는 중에 바로 그 대목을 찾아냈다. 김 교수의 이 대목을 누가 어느 문헌에서 오사하였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대학 상비고사’라는 말이 얼마나 유포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 보았더니 국립국어원 국어 연감 2006, 점자 세상 점역·교정사의 집, 광주 세광 학교 일반 자료실, 경남 점자 정보 도서관, 한국 시각 장애인 가족 협회, 새소식(2015. 10. 30.) 등 여덟 개의 사이트에 대동소이한 내용의 점자 발달 약사(略史)가 전재되어 있었고, 한결같이 이 말이 사용되고 있었다. ‘豫’는 ‘象(코끼리)’과 ‘予(나)’로 구성되는데, ‘예비’를 ‘상비’로 오사한 사람이 ‘象’의 의미가 ‘코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豫’를 ‘상’으로 적지 않았을 것이고, 한글로 된 ‘상비고사’라는 단어를 본 사람들도 ‘상비’ 하면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상비군(常備軍)’, ‘상비약(常備藥)’의 ‘상비’이므로 ‘고사’와 어울릴 수 없는 용어임을 생각하고 그대로 베껴 쓰지 않고 그런 단어가 있는지 확인했을 것이고, 확인했다면 ‘상비고사’라는 가상의 용어가 이처럼 널리 유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년에 명문당에서 나온 “신완역 춘추 좌씨전”이라는 책을 3개월에 걸쳐서 교정을 보았는데, 점자본 상·중·하권 합해서 3540페이지였다. 한문 독해력 부족으로 원문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인 것이 동음인 ‘晉(진)’, ‘秦(진)’, ‘陳(진)’ 세 국명의 구별 문제였다. 이 세 국명이 나올 때마다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교정 보조자에게 한글에 병기된 한자를 ‘나아갈 진’, ‘벼이름 진’, ‘늘어놓을 진’과 같이 대표 음훈으로 읽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맥락 파악이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종일 보조자가 옆에 있으니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혼자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한두 번만 나오면 ‘날일부 진’, ‘벼화부 진’, ‘좌부변부 진’과 같이 소속 부수로 표기해 줄 수도 있고, ‘나아갈 진’, ‘벼이름 진’, ‘늘어놓을 진’과 같이 대표 음훈으로 적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무려 3568회나 나오는 이 세 국명을 소속 부수나 대표 음훈으로 표기하는 것은 점역상으로도 번거롭고 독해 효율상으로도 시간 낭비, 노력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래전에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관에서 제작한 “열국지”를 빌려서 듣다가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의 낭독자는 이들 국명을 장단과 억양을 달리해서 구별해 주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세 동음 국명을 한글로 이렇게 표기할까 저렇게 표기할까 골머리를 썩일 것 없이 한자 점자로 ‘진(!fc)’, ‘진\_(ed)’, ‘진(\*hd)’와 같이 표기하면 점역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한자 점자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한자 점자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소네나 스크린 리더로 한자의 음훈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한자 점자까지 익히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컨대, 한소네로 ‘예금(預金)’이나 ‘예비(豫備)’의 ‘예’자의 음훈을 확인하면 둘 다 ‘미리 예’로 나온다. 그러나 이 두 자는 전혀 다른 글자로, 결코 바꾸어 쓸 수 없는 글자이다. 한글로 읽거나 소리로 듣고는 결코 이 두 글자의 정확한 구조와 의미를 알 수 없다. 이런 글자가 한두 자가 아니다. 일상적인 국어 단어라도 제대로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험한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자는 한자의 방법으로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영어를 한글로 적어서 공부하는 것을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한자를 한글로나 소리로 공부하는 것 역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시각 장애인이 한자를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한자 점자로 공부하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서 고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한자 점자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한자 점자 연구회의 창립 목적은 이렇게 과학적인 한자 점자를 보급하여 시각 장애인들의 문자 생활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홍순봉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대표기구로, 시각장애인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를 격상하고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 시각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14기 회장으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난 선거 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두 분의 후보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25만 시각 장애인을 위해 두 분의 폭넓은 경험과 깊은 통찰을 나누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분을 통해 우리 시각장애인계가 서로 협력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 확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의 시각장애인 복지가 현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각장애인계 지도자 분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수고하고 계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각장애인은 정보의 빈곤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동권, 학습권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임기 4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전 영역에 걸친 노력을 해 나가야만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계 지도자들을 비롯해 의식 있는 사회 인사 및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저는 14기 회장으로써 시각장애인 전반에 걸친 어려움 및 복지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첫 번째 목표로 움직일 것이며, 그 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장벽을 허물고 시각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사랑해 주시는 시각장애인 여러분,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노력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당연한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제 위치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많은 이들의 부름에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저를 연마하며 갈고 닦으며 여러분이 부여해주신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어긋나지 않는 회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행여 초심을 잃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큰 책망으로 꾸짖어 주시고, 정도를 걸어가며 단련하는 리더의 위치에서 힘들어할 때에는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제14기 회장직을 수행할 4년이라는 시간 속을 헤쳐 나가며 요행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투명하고 건강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신뢰와 더불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홍 순 봉**

## 사랑스러운 유성이를 키우는 워킹맘 조현영 씨

8개월 전, 시각장애인 조현영, 최정일 부부에게 사랑스러운 아기 유성이가 찾아왔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워킹맘으로 유성이를 키우는 조현영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손끝으로 유성이를 보는 저는 시각장애인 엄마입니다



### Q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8개월 된 유성이의 엄마, 조현영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5개월 후 현재는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 복직해 일을 하며 유성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 Q 처음에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A 임신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희의 시각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들 때 남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고 함께 기도를 하며 아이를 출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Q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A 임신 기간에는 아이를 꼭 자연분만으로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통이 왔을 때 병원에 가서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심박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와중에 자궁문이 열리지 않아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왕절개를 하고 나니 마취가 풀리면서 정신이 없었지만 다른 엄마들과 같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지부터 여쭙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 해주셔서 많이 울었습니다.

### Q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A 아이의 이름은 작명하시는 분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장래에 빛나는 별이 되라는 의미로 최유성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부르기도 좋고 이름의 의미도 좋아서 유성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Q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어떻게 양육하시나요?**

**A** 제가 복직을 하게 되면서 아이는 현재 시어머니께서 봐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주시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와서 저희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십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워킹맘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Q 시각장애인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사실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따르지만 가장 힘들 때는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남편과 저 둘만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동지원센터도 원하는 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아이가 다치거나 약을 먹일 때 다른 부모들은 쉽게 알아차리고 약을 먹이고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이가 다친 것도 빨리 알아차리기 힘들뿐더러 정확한 용량에 맞추어 약을 먹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Q 아이가 커가면서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들어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 때 아침 교통정리를 해준다거나 급식 배급을 해준다거나 하는 일 등등... 그런데 저는 전맹이라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저시력인 남편이 도맡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조금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이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유성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직업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생각한 적이 없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유성이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바르고 건강한 사람으로 자란다면 저희는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4월 20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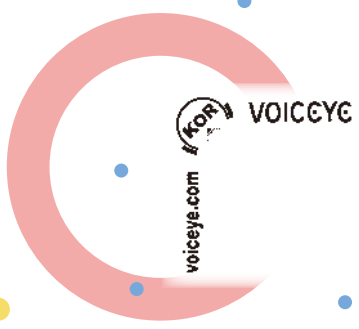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국민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1981년 UN총회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명명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1981년 당시에는 정부의 법정 기념일 축소 방침으로 인해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했었는데요. 8년 뒤인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 4월 20일이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3조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하면서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일까요?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로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의미로 인해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날 공식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헌장을 낭독하고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훈장, 포장, 표창이 수여됩니다. 특히 1997년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제정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장애인 당사자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의 주최기관은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인데요. ‘장애인의날행사추진협의회’는 장애인 당사자단체 모두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르자는 취지로 결성된 협의회로 23개의 장애인당사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전국의 지부, 지회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파 속의 쪽 별

이성희(시각1급\_서울특별시 용산구)

얼마나 추운지 자꾸 안으로 안으로만 움츠러든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는 모든 것들을 차갑고 땅땅하게 만든다. 조심스럽게 내디딘 발에 닿는 보도블록도, 아파트의 콘크리트 벽도 어느 때보다 더 시리고 딱딱하게 여겨진다. 길가에 늘어선 가로수 가지마저도 살짝만 툭 쳐도 부러질 것처럼 더욱 차갑게 메말랐다.

한파는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마저도 쪼그라들게 하는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볼 새 없이 앞만 보고 서둘러 가기 바쁘고, 평소라면 들어주었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행한 바람소리처럼 들려 시리기만 하다. 이런 날 우연히 맞게 되는 쪽 별이라도 없으면 어땠을까?

세상 사 여러 일 중에 쉽지 않은 것 하나가 인간관계일 것이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 높은 순위에 꼽히는 것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한다. 돈도 아니고 과중한 업무도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퇴사를 고려할 정도로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어떤 관계는 요즘 몇 날 며칠 이어지는 한파와 같을지도 모르겠다. 서로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공기가 시릴 정도로 차갑고, 그 찬 공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처럼 말이다. 겉으로 짐짓 안 그런 척 하겠지만.

한파가 이어지던 며칠 전 어느 날, 한 직장 동료와 커피 한 잔을 들고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상대의 이야기가 언제 끝나나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 상대가 하는 말이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꼭 지금 해야 하는지 그냥 얼른 이야기 끝내고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뿐 이었는데 웬일인지 의아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적절히 대꾸를 하면서 속으로는 그 이유를 찾았다. 별이었다. 골목과 골목 사이로 난 공간으로 쪽 별이 내 등에 닿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 한파의 냉기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몸뿐 아니라 마음도 위축되어 상대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지 않았는데 쪽 별도 별이라고 그 언 마음을 조금 녹였던 것이리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로 고달파하고, 오죽하면 직장을 그만둘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힘들어하면서 정작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자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한 파 속의 쪽 별만큼은 해왔는지.

생각해 보면 그 노력은 사실 큰 거가 아닐 것이다. 물론 방법 그 자체가 그러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먹은 걸 실제로 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 방법이 생각해 왔던 것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자꾸 떠올려 본다면 용기 내는 것도 의외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웃음 띤 얼굴로 인사하기, 인정해 주기, 10초만 더 이야기 들어 주기 등, 정말 특별히 수련을 해야 한다거나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나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다른 이에게 먼저 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노력을 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그런 시도를 해서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들에게 먼저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시도를 타인에게 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쪽 별을 먼저 비춰야 할 것이다. 이 한파도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물러갈 것이다. 계절의 봄이 오기 전에 마음의 봄이 먼저 올 수 있으면 좋겠다.



## 브라이언 맥키버, 패럴림픽 5연패 성공!

캐나다 장애인 스포츠의 살아있는 전설인 브라이언 맥키버(39)가 2018 평창 패럴림픽에서 5연패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맥키버는 지난 3월 12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20km 시각 경기에서 46분 2초 40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3세 때 스키를 배운 맥키버는 12세 때 첫 정식 대회에 참가하며 스키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19세 때 황반부 시각세포가 손상되는 스타가르트병을 앓고 시력의 90%가 손실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운동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2006년 토리노 대회와 2010년 밴쿠버 대회에 이어 패럴림픽 5연패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맥키버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 일본 개그계를 평정한 시각장애인 하마다 유타로

지난 3월 6일, 일본에서는 개그 콘테스트인 'R1 그랑프리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이 개그 콘테스트는 프로와 아마추어 여부와 관계없이 출전할 수 있으며, 500만엔의 상금이 걸려있는데요, 반드시 혼자서 개그를 선보여야 하는 이 콘테스트의 이번 우승자는 시각장애인 하마다 유타로가 차지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으로 왼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른쪽은 약간 빛이 보이는 정도인 하마다 유타로는 이번 콘테스트에서 시각장애인으로써 겪는 불편함을 개그로 승화시켰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재해석해 웃음을 준 하마다 유타로의 개그에 큰 호응을 보냈습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타악기를 연주로 스트레스 타파!

지난 3월 10일과 24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원데이 교실' 프로그램으로 타악기 음악활동 프로그램인 두드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12명과 비장애인 12명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쎬메와 수르도를 비롯한 10종 정도의 악기를 이용해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맞춰보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은 타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 시각장애인 가족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8년 상반기 시각장애인 가족 장애인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육은 시각장애인 가족 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시각장애체험, 안내보행 교육 등을 통해 시각장애를 이해하고 시각 장애인 당사자가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체험을 통해 잠시나마 시각장애인이 되어 일상생활을 해보니 가족으로써 조금 더 배려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자전거를 타며 싱그러운 바람을 느낍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 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8년 시각장애인 탠덤바이크 교실이 열렸습니다.

탠덤바이크는 두 사람이 앞뒤로 나란히 타는 자전거인데요, 보통 비장애인이 가이드가 앞에, 시각장애인이 뒤에 타게 됩니다.

탠덤바이크 교실은 2018년 3월부터 10월(7~8월은 방학)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자원봉사자와 시각장애인 참가자 10명 정도가 모여 진행될 예정인데요.

서울 중랑천 자전거도로를 맘껏 달리며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가정문화체험 실시!

지난 3월 31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낙농치즈테마체험장에서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시각장애인 가정문화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체험에는 시각장애인 10가정, 총 36명이 참가하였는데요, 치즈를 이용한 피자 만들기, 치즈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가한 시각장애인 가정은 따뜻한 봄날에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을 처음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안내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 난감함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경우 너무 난감해 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신체의 일부를 잡는 행동보다는 안내하는 사람의 팔꿈치를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도록 하세요. 물론 처음 마주치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팔꿈치를 잡게 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각장애인은 안내하는 사람의 팔꿈치를 잡고 반보폭 뒤에서 따라 걸으며 안내자의 보폭이나 앞의 장애물 유무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8년 4월 213호

발행일 2018년 4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홍순봉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http://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http://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